

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.

외환보유고(外換保有庫)는 중앙은행 및 외국 국립 은행 등에 예치된 외국 통화 예금이다. 정부의 자산으로 달러, 유로, 엔화 등이 준비 통화로서 사용된다. 특히 미국 국채로 보유된 적이 많다. 한국은 2016년 12월 현재 932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.^[*].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약 25%이 미국 국채다.

목적 [편집]

일반적으로 외환보유고는 중앙 은행을 통해 자국의 통화를 매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한다. 각 국가는 외환 투기 및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환율이 급격히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화를 비축한다.